



LAW SCHOOL

창
조

2025 VOL. 55

04 POWER INTERVIEW

정소연이라는
우주

법률사무소 보다
정소연 변호사

10 HAPPY LAWSCHOOL

“법을 통해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건국대학교 로스쿨
16기 문영민

30 LAW FIRM TOUR

“좋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됩니다.”
사람 중심의 리크루팅 철학

법무법인(유) 세종



언젠가 그것은 완전히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당신이 꿈꾼 대로요.
당신이 변함없이 충실하면요.

- 헤르만 헤세, <데미안> 中 -

POWER INTERVIEW 정소연(법률사무소 보다)	04
HOT ISSUE	08
HAPPY LAWSCHOOL 문영민(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
BOOK	13
CONTEST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14
REAL STORY 이규상(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남현(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
LAW FIRM TOUR 법무법인(유) 세종	30
SPECIAL REPORT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36
LETTER FROM 정성용(법률사무소 호담)	40
OPINION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42
HOT CLIP 법조계도 유튜브 전성시대	44
LAW TOON 조만호(법무법인 지혁)	48
HEALTH MENTORING 최혜욱(법률사무소 은송)	50
MOVIE TALK TALK 홍수정(영화평론가)	52
AKLS NEWS	54
OUT CAMPUS	56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akls.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 인터뷰 내용 등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홍대식
편집기획·진행 박소희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인쇄 (주)빅북프렌즈



정소연이라는 우주

여러 개의 행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우주인이 있다. 행성의 이름은 ‘변호사’, ‘SF 작가’, ‘번역가’, ‘활동가’... 우주인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부지런히 유명해 이 행성과 저 행성을 쉽 없이 오간다. 정소연의 우주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로스쿨 창’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1기로 졸업한 변호사 정소연입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13년째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보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법조인이 되기 전, SF 작가, 번역가로 활동했는데,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도 작가였나요?

A.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천문학자였습니다. 저는 경남 마산 출신인데, 중학생 시절 천문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더 해야 하니 서울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부모님을 졸랐던 기억이 나요.

Q. 다양한 장르 중, 왜 SF였는지 궁금합니다.

A. 제 경우에는 천문학자,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비문학 쪽에서는 과학교양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학도 과학소설을 즐겨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장르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SF라는 장르는 경이감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장르인데, 지금 여기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고실험에서 오는 세계관의 변화 등 새로운 감각을 경이감이라고 해요. 이 경이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Q.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철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장르의 특성상 이과적 지식이 필요할 법도 한데, 관련 지식은 어떻게 얻는지요?

A. 저는 이과적 지식이 별로 없어서... 소설에서 다루는 과학은 실제 과학이 아니거든요. ‘상상적 과학’이라는 비평적 개념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현실의 과학적 지식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소설의 세계관 내에서 성립하는 과학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거나, 지금 인간인 그대로 평행우주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의 지식으론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과학소설에서는 가능한 척 하지요. 이 시치미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떼는지가 중요하죠!(웃음) 그래서 공교육과 교양서적에서 얻은 지식으로 대충 버티고 있습니다. 과학 월간지를 읽으며 소설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기사에 체크해 놓거나 하면서 소재를 모으기도 합니다.

Q. 지난 2월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소설집 《미정의 상자》를 출간했습니다. 기존에 선보였던 단편에 신작을 엮어서 출간한 건데, 창작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A. 모든 소설가의 창작의 근원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글을 쓰고 싶다면 일기를 써서 혼자 봐도 되는데, 굳이 독자의 존재가 필수인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이야기꾼’에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번역가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 자신이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고 쓰다 보니 저에게도 ‘나 혼자 보지 않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조건이 다르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학소설의 사고 실험적인 측면과 잘 연결이 되어 계속 쓰고 싶은 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Q. 창작활동과 더불어 번역 작업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번역할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번역 소개될 의미가 있는 책인가, 둘째,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번역은 한 번 거르는 과정입니다. 모든 외국 작품이 번역될 수 없는 이상, 한국에서 번역가가 공을 들이고 번역출판권 같은 추가적인 일을 하면서까지 한국 독자에게 소개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가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작품이 조금씩 다른데, 한국에 소개될 만한 책이라도 내가 잘 번역할 수 있는 작품인지도 살펴봐야겠지요.

Q. 로스쿨 진학 계기가 궁금해지는데

법조인의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의심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보고 영길이 아니면 다른 길 가면 됩니다. 일단 걸어보세요. 공부는 힘들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치와 보람이 있고, 설령 법조가 내 적성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도움이 될 거예요.

요. 또 변호사라는 새로운 진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A. 이젠 정말 할 말이 많은데(웃음), 돌이켜보면 기본적으로는 소설가로서의 슬럼프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첫 번역서를 냈고, 같은 해 창작자로서도 상을 타며 문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서점 매대에 놓인 제 책을 보며 ‘이제 이 귀갓길에 내가 죽어도 이 책에 쓰인 내 이름이 나보다 오래 남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비장했죠! 그런데 몇 년 지나 보니, 아뿔싸? 제 첫 책은 절판이 되었는데 저는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는 2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 첫 법학석사시험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교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을지, 로스쿨을 갈지 뚜렷한 결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도 잘 나왔고, 제 주변에 법조인이 없다 보니 소설가나 변호사나 ‘글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점은 비슷하다는 일종의 착각을 하게 되어 로스쿨에 진학했지요.

Q. 현재 ‘법률사무소 보다’를 운영하고 계신데, 변호사로서의 정소연을 소개한다면요?

A. 음...열심히 하는 통역사이자 네비게이션? 변호사의 일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법률언어라는 새로운 언어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법조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법률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어 문법과 한글을 사용할 뿐, 사실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이를 법적 절차 안에서 잘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저처럼 주로 개인 고객을 만나는 송무변호사의 의뢰인들은 법적 절차의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초행길이지요. 그러니 하나하나가 불안하고 어색한데, 이 길을 네비게이션처럼 잘 인도하여 절차 끝까지 의뢰인이 지지거나 불안하지 않게 이끌어 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요즘, 사비를 들여 장학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시작된 사업인가요?

A. 2017년 경에 제가 한 재단의 초청으로 캄보디아의 지방대학에 강의를 하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캄보디아도 몇십 년 전 우리나라처럼 성차별이 있고 고등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이라 남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프놈펜 같은 대도시로 보내지만 여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학을 가더라도 집 근처의 지방대학을 가기 때문이라더군요.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여학생이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아동청소년까지만 지원을 하다 보니, 여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고졸에 그치고, 그나마 국제 NGO 중 고등교육을 지원해 주는 일부 프로그램으로 여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지방에서 자라며 뜻있고 능력 있는 여자친구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나름 돈을 버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먼저 대학 장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베트남과 네팔로 확대했고요. 지금까지 10여 명의 여학생들을 대학에 보내 졸업시켰습니다.

Q. 변호사, 소설가, 번역가, 칼럼리스트. 소위 말하는 ‘N잡러’인데, 어떤 일에 가장 애착이 가는지요?

A. 다 중요하죠.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변호사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제 정체성은 ‘작가’였는데 언젠가부터 변호사가 되었던라고요. 일단 변호사업이 생업이기도 해서, 다른 직업을 지탱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대변하여 이해시키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는 전 과정이 기대 이상으로 제 적성에 맞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보람이 있어요.

Q. 2012년부터 운영한 법률사무소 보다의 운영자로서 애로사항, 그리고 보람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것도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우리는 변호사가 된다고 할 때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이 직업이 경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죠. 변호사가 되면 취업 또는 개업을 선택하고, 취업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개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취업은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개업은 사용자, 경영자가 되는 것이예요. 이 점을 처음에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어려웠습니다. 간단하게는 세금계산서와 복식부기, 경영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너무 낯설어 쉽지가 않았 습니다.

보람은, 십여 년 이상 한 곳에서 한 사무실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점이지요. 많은 사건들을 성의있게 수행하며 큰 사고 치지 않고 일해왔고,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개인사업자로서 갖는 높은 자유도 덕분에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도 하고요.

Q. 다양한 일을 해내려면 시간 관리가 관건일 텐데,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적당히 삽니다.(웃음) 제 좌우명이 “일은 하면 줄어든다”입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을 죽 써놓고 하나씩 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Q. 끝으로 여러모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법조인의 길이 내 길이 맞는지 의심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보고 영길이 아니면 다른 길 가면 됩니다. 일단 걸어보세요. 공부는 힘들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치와 보람이 있고, 설령 법조가 내 적성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도움이 될 거예요.



정소연 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보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설 창작과 번역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세계의 악당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법』 『앨리스와의 타임』 『미정의 상자』 등이 있다.

issue 01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시행

1월 14일(화)부터 18일(토)까지 나흘간(1월 16일 휴식일)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교에서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첫날에는 공법, 이후 △15일 형사법 △17일 민사법 △18일 민사법 사례형과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이 차례로 치러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14회 변호사시험 출원자는 3763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도 논술형 시험은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졌으며, 출원자 3763명 중 3754명이 CBT 방식을, 9명이 수기방식의 시험을 선택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스쿨타임즈 제공)

issue 02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 수상자에게 약수를 건네고 있다. (사진=로스쿨타임즈 제공)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스쿨타임즈 제공)

제16회 가인법정 변론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1월 21일(화)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제16회 가인법정 변론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5개 팀 375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경연 결과 민사 부문에서는 고려대 팀이, 형사 부문에서는 한양대 팀이 가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본선 진출교 원장이 다수 참석했다.

issue 03

2025년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8월 2일 시행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2일(토)에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6월 23일(월)부터 6월 27일(금)까지이며, 합격자는 9월 11일(목)에 발표된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 기준점은 70점 이상(P/F 방식)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7월 11일(목)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sue 04

웃음꽃 핀 로스쿨 학위수여식

지난 1월과 2월, 전국의 로스쿨에서는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학위수여식 행사에는 로스쿨 원장과 교수를 비롯해, 해당 대학의 총장, 졸업생, 법조인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앞날을 응원했다. 한편 25개 로스쿨은 새로이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했다.



중앙대 로스쿨 학위수여식(사진=중앙대 로스쿨 제공)



아주대 로스쿨 학위수여식(사진=아주대 로스쿨 제공)

issue 05



제4회 윤춘·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단체사진 (사진=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공)

제4회 윤춘·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는 2월 7일(금) 법무법인 윤춘 본사에서 ‘제4회 윤춘·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윤춘·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상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권용우(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김인규(서울대 로스쿨), 송기우(서울대 로스쿨)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민성일(서울대 로스쿨), 이준협(서울대 로스쿨), 한준엽(서울대 로스쿨) 학생이 수상했다.

issue 06

법제처, 제31기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법제처는 지난 2010년부터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연 2회 실무수습을 실시해왔다. 제31기 실무수습은 지난 2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 법제 사전 검토회의 등에 참관했다.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의 참관 모습 (사진=법제처 제공)



법령안편집기 실습 모습(사진=법제처 제공)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을 지내고 있는 문영민 학우는 새로이 입학한 17기 후배들을 맞이하느라 제법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학에 매료돼 로스쿨에 진학한 문영민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을 통해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Q. 학부 시절엔 무엇을 공부했나?

A. 학부 시절에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통치구조와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을 배우고, 사회적 가치들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입법분야에 큰 관심을 두고 공약이나 법안들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임을 실감하며 관련된 교내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Q. 로스쿨 진학 계기는?

A.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전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대학 축제 관련 공약을 기획한 적이 있다. 공약 수립과정에서 대학 내 주류·음식 판매가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는 문제를 발견했고, 지역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주류 및 음식 판매를 위해 대학생활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법령을 검토하며 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큰

매력을 느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법과 그 체계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법률 전문가로서 직접 법을 다루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

Q. 건국대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A. 학부 시절부터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하며 학교의 학풍과 시스템에 익숙했고, 로스쿨 생활에서도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건국대학교 로스쿨을 선택했다. 특히 건국대 로스쿨은 속칭 미니 로스쿨로 장단점이 뚜렷해보였지만, 동기들 및 선후배들간의 긍정적인 협력이나 도움을 주고받기 쉬운 환경이라 생각해서 지원했다. 나군도 미니 로스쿨을 지원했다.

Q. 로스쿨에서의 1년, 어떻게 보냈나.

A.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웃음) 입학 전 선행부터, 1학년은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문영민

쌓는데 집중한 한해였다. 첫 학기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학부에서도 법학 과목을 수강했지만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걸 느꼈다. 특히 생소한 사례형 시험에 적응하

는데 애를 먹었지만, 동기들과 스터디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2학기에는 학생회장으로 원우들과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Q. 학생회장(원우회장)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소개해달라.

A. 10월에 학생회장으로 취임하고 바로 휴게실부터 리모델링하고 새로 가구를 들

Q.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다.

A. 일과는 매우 단순하다. 학교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일어나자마자 학교 열람실에 와서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오전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사례 스터디를 주로 하고 학생회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처리한다. 되도록 저녁 9시까지 학교에 남아있으려고 한다. 집에 와서 새벽 해외 축구 경기를 보는 게 나름의 소소한 행복이지만 학기 중에는 오전 수업이 많아서 요즘 통 챙겨보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에 들어와서 가장 아쉬운 점이다.(웃음)

Q. 법학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정치학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으로, 권력, 국가, 이념, 정책과 같은 개념을 연구하며 사회 구조와 변화를 큰 틀에서 분석한다. 반면, 법학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체적인 학문이다. 법은 개인, 국가, 법인 등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직접 적용되며, 명확한 규범과 절차를 통해 사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법학은 단순히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을 배우는 것이 앞으로 내 직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Q. 법학과 친해지는 노하우를 소개해준다면?

A. 완벽하게 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 같다. 로스쿨에서 공부해야 할 법 과목 분량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 선행하면서도 ‘아직 이해를 다 못했는데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 될까?’ 하는 마음에 불안했던 나머지 1회독을 겨우 더 하고 입학했다. 지금 와서 보면 완벽히 체득하지 못했어도 다음 진도로 빠르게 넘어가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법도 그렇고 모든 법과목들은 진도별로 개념이 분절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만큼, 빠르게 다음 진도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회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해지는 것만큼 법학과 친해지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Q.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A. 신입생 맞이 일로 많이 바쁘다.(웃음) 오리엔테이션부터 멘토링 기획 등 17기 분들의 입학과 관련해서 학생회 업무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소수정예(?)의 건국대 로스쿨인 만큼 동기 및 선배 원우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Q. 졸업 후에는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

A. 입법 자문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싶다. 정부의 입법 권한이 커지고, 입법 절차 진행과정에서 기업 및 각종 단체들의 대응이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로펌들도 국회 입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법 리스크를 관리하고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특히 공공정책 분야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의 입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Q. 끝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나?

A. 작게는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고, 거창한 꿈으로는 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법 조문 한 글자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단순히 글자를 넘는 큰 파급력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었으면 한다.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

로스쿨을 졸업한 직후, 천수이 변호사의 첫 직장은 구청 화장실 앞 복도에 세워진 한 평짜리 무료 법률 상담소였다. 공짜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노숙자, 야쿠르트 배달 아주머니, 일용직 건설 노동자, 유언장을 쓰려면 한글부터 배워야 하는 할머니 등 가장 법의 보호가 필요하면서도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지난 2월 출간된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에는 난생처음 듣는 사연들 앞에서 당황하고 허둥대던 초짜 변호사의 이야기와 그를 한 뼘 성장시킨 사연들이 담겼다.

천수이 변호사는 “법의 이성에도 빈틈이 있다면 그 틈을 메우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라며, “사랑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것, 힘들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기도 하며 그 계절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람이 되어 가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겼다”고 소개했다.

저	자	천수이 변호사
출 판 사	도서출판 부키, 292쪽	



계속하는 마음

박주희 변호사가 첫 산문집 <계속하는 마음>을 펴냈다. 책에는 예술의 자유로움과 법의 책임감을 기억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변호사의 일상이 담겼다. 일을 하며 좌절감을 느낄 때 느그롭게 곁을 내어주는 예술이 있었기에 계속하는 마음이 닳지 않았다는 담담한 고백도 이어진다. 출판사는 서평을 통해 스스로를 토닥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설명한다. 또 실패와 좌절을 마주했더라도 자신을 끊임없이 다독이는 것이 계속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한다고 강조한다.

박주희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문화예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로펌 제이의 대표 변호사이다. 2020년 <포브스(Forbes)> 선정 ART & CULTURE 분야의 파워 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저	자	박주희 변호사
출 판 사	마로니에북스, 164쪽	



변론 능력으로 승부하라!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의 헌법재판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로스쿨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현장을 찾았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종 변론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 147명이 49개의 팀을 이뤄 참가했다. 이 가운데 8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라 변론 능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에는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제가 출제됐으며, 본선에 오른 8개 팀은 위헌과 합헌으로 나뉘어 치열한 변론 경연을 펼쳤다. 대회 결과 헌법재판소장상은 이화여대 로스쿨 ‘법쟁이토마토’ 팀, 금상은 경북대 로스쿨 ‘단디’ 팀, 은상은 서강대 로스쿨 ‘유토피아’ 팀과 ‘헌법연구모임 수호’ 팀이 수상했다. 참가자 중 가장 우수한 변론을 펼친 개인에게 주어지는 우수변론상은 ‘법쟁이토마토’ 팀의 박소현 학생이 받았다.

여기서 잠깐!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프로세스는?

예심(서면심사)	본심(구두심사)
참가 팀이 제출한 서면을 심사해 본심 진출 8개 팀 선정(청구인 측 4개 팀, 이해관계기관 측 4개 팀)	① 1차 변론: 2개 조로 나누어 변론 진행 (조 구성: 청구인 측·이해관계기관 측 각 2개 팀) ② 최종 변론: 1차 변론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4개 팀 선정(조 구성: 청구인 측·이해관계기관 측 각 2개 팀)



개회사 중인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강평 중인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단체사진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에서 헌법이 구체적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를 배우고, 그 속에서 법조인이 갖춰야 할 덕목인 논리적 정합성과 치밀함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회 종료 후 강평을 맡은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은 “올해 주제는 참으로 시의적절했지만,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니 대한민국 헌법이 더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전했다.

■ 수상 정보

상 명	팀 이름	소속	상금
헌법재판소장상(대상)	법쟁이토마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0만 원
금상	단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0만 원
은상	유토피아 헌법연구모임 수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00만 원
동상	광광 잔불의 파수꾼 존엄의 나무 케르베로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만 원
우수변론상	법쟁이토마토 팀의 박소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만 원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우승팀 미니 인터뷰

이화여대 로스쿨 법쟁이토마토 팀(김태은, 김서현, 박소현)



Q.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대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쁘고 뿌듯합니다. 모두 뛰어난 팀들이 모여있는 만큼 대상 수상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저희 팀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다.(웃음) 한 해 동안 좋은 수업해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헌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팀원 소개 및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A. 저희 팀원들은 모두 이화여대 로스쿨 16기 학생들입니다. 예리한 시각으로 날카로운 논리를 제시하고 전체적인 방향 정리를 잘해주는 김태은(가번), 헌법적 지식이 탄탄하고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언제나 가장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김서현(나번), 사안과 흐름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파악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박소현(다번)이 모였습니다. 각자 룸메이트, 지도반 친구, 스터디원으로 처음 만나 의기투합해 법쟁이토마토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친구들이라 대회를 준비하는 내내 고마웠고 팀원들을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Q. 팀명 '법쟁이토마토'는 무슨 뜻인가요?

A. 동요 '멋쟁이 토마토'에서 각자 멋진 꿈을 가진 토마토들처럼, 멋진 법조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웃음) 무거운 법을 다루면서도 유쾌한 모습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동요를 바탕으로 팀명을 지었습니다.

Q. 제11회 경연대회의 문제를 접한 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했나요?

처음에는 합헌론과 위헌론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처분이 도입될 때마다 합헌 결정을 해왔지만, 이번 문제에서 제시된 법안은 위헌적 성격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결정례 및 법리를 공부하고 자료조사를 마친 끝에 도전적으로 위헌 주장을 해보고 싶어 청구인측 대리인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입장을 정한 후에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추출했고, 충
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의 사실관계와 가장
적합한 쟁점들만을 모아 하나의 흐름을 가
진 논리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Q. 변론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A.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훌륭한 서면과 탄탄한 논리, 철저하게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도 변론 당일 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자신감 있는 태도와 어조로 변론하고, 반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변론 준비 과정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을 계속 제기하며 토론하고 저희 팀의 입장을 통일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대회 당일 누가 답변하더라도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팀원이 전체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재판관님이나 상대팀의 질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필요하다면 서로 첨언하며 더욱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A. 본선 준비기간이 다소 촉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합헌측이 제시할 쟁점과 주장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팀원들끼리 지치지 않도록 적절히 기분전환을 하며 준비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었고, 결과적

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Q. 우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서면준비 과정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반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변론서 작성 과정에서 대면으로 만나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고 납득 가능한지, 내용상 모순은 없는지를 문장 하나하나 확인 및 수정해 팀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변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선에서는 합헌측의 입장에서 저희의 주장을 바라보며 어떤 질문과 반박이 들어올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같이 답변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다 같이 예상 질문과 반박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모두가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반박이 들어오더라도 서로를 믿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려고 노력했고 상대측 질문에 피하지 않고 전부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Q. 제12회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한 가지 입장에 고립되기보다 합헌과 위헌 양측 입장을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쟁점이 반대측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신 있는 쟁점으로 주장될지를 고민하며 변론과정을 준비하다 보면 본선과정에서도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을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즐겁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팀원들과 자주 만나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회를 준비하여 그 과정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팀원들과 서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회 로스쿨 & 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25. 3. 17(월) ~ '25. 5. 16(금)

PART 1
로스쿨
입학 수기

입학 준비과정 및 노력
전형별 노하우 소개

PART 2
로스쿨
생활 수기

법학과 친해지는 방법
로스쿨에서의 즐거움

PART 3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변호사시험 준비 방법
영역별 고득점 팁



공모 기간

'25.3.17(월) ~ '25.5.16(금)

참가 자격

PART 1 2025학년도 로스쿨 신입생
PART 2 로스쿨 재학생(학년 무관)
PART 3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모 주제

로스쿨 입학, 생활 전반에 관한 수기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과 합격 수기

참가 방법

첨가신청서와 지정된 원고 양식, 재학증명서를 이메일
(sh@akls.kr)로 접수

*첨가신청서 및 원고 양식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주진 일정

결과 발표 및 시상식 6월 중

시상 규모

*총 19작품 선정

구분	PART 1	PART 2	PART 3
대상	1작 (200만원)		
최우수상	1작 (150만원)	1작 (150만원)	1작 (150만원)
우수상	2작 (각 100만원)	2작 (각 100만원)	2작 (각 100만원)
장려상	3작 (각 50만원)	3작 (각 50만원)	3작 (각 50만원)

문 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2-752-2036~2037

로펌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이규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이규상입니다. 로스쿨 입학이 었고 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지난 겨울방학 때 참여하였던 로펌 인턴십에 대한 전반적인 후기를 작성하려고 하였습니 다. 다만 지면의 한계도 있고, 여러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 우려되어, 인턴십 선발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기소개서 (이하 자소서)’의 작성 방법에 한해 간략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로스쿨 자소서와 달리, 로 펴 자소서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정보가 없어 막막하였는데, 이 글을 읽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소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글이 아니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자 합니다. 최대한 사건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제 견해도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은 1) 형식, 2) 내용에 대한 조언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II. 형식에 관하여: 짜임새 있는 글이 보여주는 색다른 매력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형식과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용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시며, 제 생각도 전반적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 역

시 평가에 매우 유의미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글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글을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것이 비중있게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시간을 들여 글을 여러 번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펌 이름을 잘못 적는 것 등의 기초적인 실수는 쉽게 잡아내어 수정할 수 있지만, 글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히 난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동일 문장 내에서의 반복된 표현 (~하였으 며 ~하였습니다 등), 이러한~ 등과 같은 표현의 지나친 중복 사용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나, 짧은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주시상목행’이라고 하는 법률 문장식 구성 방법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체-시간-상대방-목적-행위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실제로 판결문도 이와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이와 같은 문장 순서를 체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이 점을 고려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III. 내용에 관하여: 강점은 풍부하게, 약점은 간결하게

로스쿨 자소서와 비교하였을 때, 로펌 자소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대한 수월성과 로스쿨 내에서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는 로스쿨 자소서와는 달리, 로펌 자소서의 경우 ‘회사에서 왜 자신



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로펌에서는 기본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애정 내지 점점, 왜 다른 로펌이 아닌 이 로펌이어야만 하는지,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사례에 대한 언급 등을 적절히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로펌에 지원하는 경우, 각 회사에 맞추어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색있는 자소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저의 경우 지(智), 덕(德), 체(體)라는 세 줄기를 먼저 잡은 뒤, 학업능력, 협업능력, 우수한 체력을 각 강조하였습니다. 학업능력의 경우 로스쿨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과목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물론 성적표에 학점이 이미 기재되어 있지만) 알파벳으로 드러나지 않는 저만의 성취과정 및 발전가능성을 가감없이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부분의 경우 축구부, 멘토링 등의 활동을 소재로 삼아, 제 자신이 로펌 변호사로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로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자소서에 반영할 소재를 물색하고 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장점은 최대한 깊고 풍부하게 서술하되, 성적표 및 이력서 등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약점은 기재하지 않거나, 내용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면 간략하게만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의 분량 자체가 약점을 자세히 서술할 만큼 분량이 넉넉하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약점(한두 과목에서 B 학점을 받은 것, 1년 내외의 공백기 등)을 자세히 소명하는 경우 자칫 그 부분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지원자의 장점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짧은 분량 안에 자신을 입체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안의 소명 여부에 대한 필요성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IV. 맺음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소서는 로펌의 인턴십 선발 과정, 그리고 이후의 채용 절차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교내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변호사님들도 예외 없이 자소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자소서 초안을 완성하여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역시 학생일 뿐이며, 자소서를 매우 잘 쓴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입장 역시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소서의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1년 먼저 로스쿨 생활을 경험한 사람의 소소한 팁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추후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서강대 로스쿨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기자 허남현입니다. ‘로스쿨 창’에 서강대 로스쿨 뉴스레터를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창립 배경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는 서강 법전원의 공식 학보로서, 대내적으로는 교수진, 학생, 졸업생 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창구이자, 대외적으로는 서강 법전원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공간입니다. 2022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년간 총 11호의 뉴스레터를 발간하며 법전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뉴스레터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구성원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강 법전원의 학문적 성취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으고, 나아가 외부에도 법전원의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 학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수님들의 꾸준한 관심 덕분에 뉴스레터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학내 주요 행사, 학생들의 활동, 교수진의 연구 성과, 졸업생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며 법전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뉴스레터의 구성과 과정

1. 주요 코너 소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는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구성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강 법전원의 정체성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각 호마다 다음과 같은 코너를 통해 법전원의 활동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선배, 재학생, 교수님 인터뷰**

법조계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 선배들, 재학생들의 로스쿨 생활, 그리고 교수님들의 학문적 비전과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 **대회 수상 기사**

법학 관련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재학생들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참가 과정과 후배들에게 유용한 팁도 함께 소개합니다.

• **세미나 및 학생회 소개**

학술 세미나, 특강, 공모전 등 주요 행사와 학생회의 활동을 기록해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다양한 움직임을 전달합니다.

2. 발행주기와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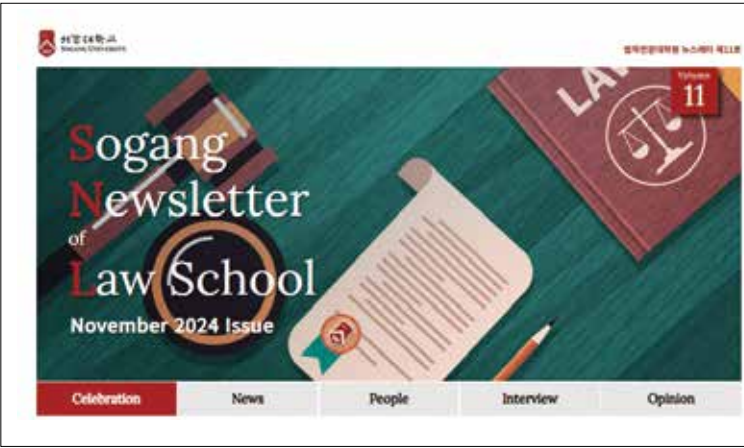
서강 법전문 뉴스레터는 분기별로 연 4회 발행되며, 학기 중 한 번, 방학 중 한 번씩 구성원들에게 전달됩니다.

발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두 명의 학생 기자가 각 호의 방향성과 콘텐츠를 기획하며, 주요 기사인 인터뷰, 대회 수상 소식, 세미나 소개 등을 분담하여 원고를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재학생, 교수님, 졸업생에게 기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원고는 최종 정리 후 행정실에 전달되며, 행정실은 전체 콘텐츠를 검토한 뒤 용역 업체에 전달하여 최종 편집과 디자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완성된 뉴스레터는 온라인에 업로드되며, 구성원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배포됩니다.

3. 애로사항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고자 모집입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 선배님들의 인터뷰를 실으려 할 때, 학교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서강대 로스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뉴스레터



선배님들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주로 학교에 강연이나 세미나 등의 공식 행사로 방문하신 선배님들께 인터뷰를 요청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분야에 계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담고자 하는 욕심은 늘 남아 있습니다.

4. 보람과 성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를 발간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은 구성원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로스쿨 내에서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인턴십, 공모전, 학술대회 등 대외 활동 소식이 같은 기수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후배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단절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뉴스레터를 통해 재학생들의 수상 소식이나 외부 활동 내역을 기록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로펌에 관심 있는 학생이 해당 로펌에서 인턴을 했던 선배의 인터뷰를 보고 직접 연락해 보는 등 소규모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학교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맺음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보석과 같은 인재들로 구성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공간에서 뉴스레터는 단순한 소식지를 넘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창구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뉴스레터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동기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서강 법전문 뉴스레터가 구성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더 넓은 세상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레터 제작을 위해 재학생 인터뷰를 하는 허남현 원우(오른쪽)



콘텐츠 기획 회의 모습

전남대학교 로스쿨 밴드부, 공동정범을 소개합니다!



이승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밴드부 공동정범의 회장 이승민입니다. 소중한 기회로 로스쿨창 독자님들에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공동정범은 음악을 사랑하는 원우들이 모여 결성된 밴드 동아리입니다. 연중 주기적으로 부원들과 합주를 하고 그렇게 준비한 음악들을 연1회 정기공연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평소 밴드음악을 즐겨듣는 원우들, 그런 음악을 즐겨듣진 않더라도 삭막한 로스쿨에서 함께 즐길거리를 찾는 원우들, 무대에 오른 부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 준 친구·가족들까지, 다양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활동의 열개만 적어두고나니 여느 대학교 밴드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물론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밴드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학부에서 밴드를 하던 때보다 훨씬 불비한 여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잠깐만 로스쿨 밴드부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로스쿨에서의 밴드활동이란 무엇인가

학부생 때의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동아리방이 있었고, 주기적인 회합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동아리방엔 언제나 실력 좋은 선배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악기를 갖고 있지 않거나 악기가 처음이더라도 공강 시간에 동아리방을 찾아가면 그런 선배들로부터 연주의 기초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 로스쿨에서는 공강 때이든 그날의 수업을 마친 이후이든 다들 막중한 공부량



'24년 정기공연 포스터



합주실에서 연주할 곡의 차례를 기다리며 개인연습을 하는 모습

에 쫓겨 개인공부를 하여야 하니 앞서와 같은 부원들 간의 교습은 아무래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기에 대한 경험 없이 입부를 한 부원들은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 학교 근처 실용음악 학원을 방문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하여 레슨영상을 보며 악기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겨우 시간을 내 개인연습을 하더라도 학기 중에 다 같이 시간을 맞춰 합주를 하는 것은 여간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기 중에는 많아야 2~3회 정도 합주를 진행합니다. 방학에 이르러서야 각종 과목들을 예복습 하는 와중 틈을 내 주1회 합

주를 진행합니다. 공연 및 개강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저희는 대체로 2학기 개강 첫 주에 공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무대에 음악을 올릴 수 있을까’ 싶은 우려로 합주일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원대하게 꾸려두었던 방학 초 공부 계획은 자꾸 틀어져만 갑니다. 개강 첫 주, 한창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까지 하니 그 부담감에 손 떨림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공연을 끝마치기만 하면 이런 고난했던 기억이 으레 그렇듯 즐겁고 의미 있었던 추억으로만 남게 되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토록 바쁜 로스쿨 생활 중에 왜 굳이 밴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항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 로스쿨에서 밴드부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건강한 취미 하나 갖고있는 게 로스쿨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입학 전, 몇 개월간 매일 야근을 하고 매주 주말에도 하루씩은 출근을 하는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도 내일이 찾아오는 게 두려웠고 딱히 기대할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인 날들이었습니다. 이후 퇴직을 하였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날의 공부를 마치고 공동정범 부원인 다른 동기와 함께 정독실 건물을 나서며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 공부에 신세 한탄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일모레 합주하잖아!”와 같은 얘기를 하며 웃으며 하루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적 삶’을 포기하고 공부와 생존만을 목표로 한 채 로스쿨을 다닐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마치고 학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룬 사람도 분명



'24년 정기공연 폴라로이드 사진 모음



'24년 정기공연 공연영상 편집본 썸네일



'24년 정기공연 공연, 공연장 대기실



공연 전 마지막 합주를 마치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3년이라는 시간이, 무언가를 소진하기만 할 뿐 다시 채워넣지 않는 하루들로 이어 나가기에는 자못 긴 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기 위해선 역시 건강한 취미 하나쯤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로스쿨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중에서도 밴드활동이라는 취미가 갖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좋아하는 것을 나눈다는 것, 그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멋진 일일 것입니다. 함께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며 같이 땀 흘리는 경험은 함께한 이들에게 쉽게 유대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로스쿨생에게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테고요.

스포츠와 같은 취미에 비해 밴드활동은 본질적으로 경쟁을 불요합니다. 대립적인 경기를 펼쳐 승패를 결정할 필요 없이 더 나은 연주·무대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합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로스쿨은 각자 다른 경험, 다른 나이를 가진 다양한 이들이 동등한 지위로서 한 자리에 모이는 곳입니다. 같은 밴드부 내에서도 악기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자와 이곳에 입학 후 처음 악기를 잡아본 초심자가 함께 합주를 하고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숙련자들로만 구성돼서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연주를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초심자들이 합주를 거듭해나갈수록 곡의 완성도가 점차 높아져 종내 무대에서 멋있게 곡을 소화하는 모습에서는 감동까지 느껴지도 합니다. 별론으로 취미생활 중 부상당할 일이 별로 없다는 점도 밴드활동의 소소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

마지막으로, 갖은 이유로 지금 밴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곳을 졸업한 이후에도



공동정범
'24년 정기공연
영상 링크

할 수 없으리란 예감 때문입니다. 아직 실무를 경험해보진 못하였지만, 졸업 이후의 생활이라고 하여 지금보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넘쳐나지 않으리란 것은 쉬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공부는 나에 대한 책임에 그칠 뿐이지만 변호사가 되어 하게 될 업무는 동료, 의뢰인, 공동체 등에 대한 책임까지 이고가야하는 것이겠지요.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역시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도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전문성을 기르고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기 위해 어차피 공부는 평생 이어나가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이, 내가 투신하여야 할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고 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회 역시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일 뿐더러 좋은 삶을 위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맺으며

저 자신이 밴드음악을 좋아하고 밴드를 오랫동안 해왔기에 밴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나 비단 밴드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듯합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거나 로스쿨에 진학 예정, 진학을 희망하는 독자님들께서도 이곳에서의 3년을 단지 ‘임시의 삶’으로 여기지 않고 졸업 이후에도 따뜻하게 추억할 수 있는 순간들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공동정범에서 만난 것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무사히 이곳에서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정범의 작년도 정기공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QR코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수평적 조직문화와 사람 중심의 리크루팅 철학

“좋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가 됩니다.”



인터뷰이.
박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세종)

인터뷰이.
정지웅 변호사
(법무법인(유)세종)



인터뷰어.
안정미 학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좌측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박준현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와 인터뷰어로 참여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정미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해 채용 전제형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된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트레이닝’을 도입했다. 세종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세종의 리크루팅 담당 변호사를 만나 채용 과정을 상세히 들어봤다.

“동료들과 원활하게 협력하며 성장하는 인재 선호”

Q. 최근 채용 전제형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인턴제도와 현재의 면접 중심 채용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박준현 변호사: 기존의 채용 전제형 인턴제도는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인턴십 기간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과제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는데, 이미 학업 성적을 통해 역량을 평가 받은 학생들에게 또 다시 경쟁을 시키는 것

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인턴십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된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트레이닝’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 예정자들은 약 일주일 동안 회사 문화를 경험하고, 선배 변호사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과거의 인턴십이 평가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방식은 보다 자유롭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지웅 변호사: 기존의 채용형 인턴십에서는 학생들이 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

꼈고, 평가받는 긴장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했다. 반면, 현재의 방식은 이미 선발된 후배들이기 때문에 보다 애정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멤버십 트레이닝에서는 실무와 유사한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강의를 신중하게 구성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Q. 지원서 및 면접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박준현 변호사: 세종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보다는, 동료들과 원활하게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후배를 잘 챙기고, 본인의 일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을 배려하며 협업하는 자세를 가진 지원자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정지웅 변호사: 로펌 업무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특히 자문팀의 경우,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파트너 변호사 및 여러 어소 변호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팀원들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로스쿨 성적도 중요하지만, 세종은 지원자의 대인관계 및 소통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Q. 면접은 1대10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다.

박준현 변호사: 세종의 면접 방식은 지원자 한 명이 면접을 보고, 리크루팅 커미티 전원이 참여해 평가하는 1대10 방식이다. 면접이 끝난 후, 모든 면접관이 한 표씩 행

사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일부 지원자는 면접 중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미리 꼼꼼히 읽어본 후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의 태도와 자기소개서에서 받은 인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20분 남짓한 짧은 면접 시간 동안 지원자의 모든 역량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면접관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면접 후 지원자의 평판 및 레퍼런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Q. 리크루팅 커미티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

박준현 변호사: 세종의 리크루팅 커미티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파트너 변호사 5명과 어쏘 변호사 5명으로 이뤄져 있다.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진행되며, 지원서 검토부터 면접 진행, 최종 선발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회사의 방향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신입 변호사들이 세종의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다.

Q.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AI를 활용하는 지원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



법무법인(유) 세종 박준현 변호사

과 지원자들이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팁을 부탁한다.

박준현 변호사: 자기소개서의 형식이 지나치게 정형화돼 있고, 기존의 틀을 따르다 보니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 읽을 때 인상 깊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본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나치게 형식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면 개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지원자의 성향과 가치관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본인의 강점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기업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AI를 활용해 작성할 경우, 정형화 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개성과 강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팀 배정은 지원자 희망 분야 고려”

Q. 이번에 졸업하고 입사하는 14기 로스쿨생들의 성별 비율과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

박준현 변호사: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정확히 50:50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연령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제공하기 어렵다.

Q. 16기 신입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심사를 통과한 인원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

박준현 변호사: 대략 2배수 정도가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

은 약 30~40명 사이이며, 매년 입사자 수에 맞춰 선발 인원이 조정된다.

로펌은 미래의 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채용 규모가 내부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원을 미리 정해 두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로 선발이 이뤄진다. 정규 선발 과정(정시)에서는 1학년 때 선발이 완료되며, 2학년 이후에는 수시 채용을 통해 일부 인력을 추가로 선발할 수도 있다.

Q. 세종은 나이가 많으면 입사에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준현 변호사: 어린 변호사가 선배들과 조금 더 원활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업무 역량이 뛰어난 변호사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선배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이번 선발 과정에서도 나이가 많은 지원자들이 다수 합격했으며,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우선적으로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업무 능력과 적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법무법인 세종 내부 전경

Q. 선발 이후 팀 배정과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박준현 변호사: 세종은 특정 팀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은 10월 모의시험을 마친 후, 11월 초에 진행되는 팀 설명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회사 내 다양한 팀과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또한, 선발된 인원들은 그 이전에도 여러 선배 변호사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각 팀의 업무와 환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 관심 있는 분야와 적합한 팀을 고민할 시간이 약 2년 정도 주어진다. 로스쿨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특정 팀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월에 진행되는 팀 설명회 이후, 지원자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팀을 3곳 정도 선정하게 된다. 별도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으며, 회사 측에서도 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최종 배정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희망한 팀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사한 이후에는 2~3주간 ‘집현전’이라는 신입 변호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게 되며, 다양한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 또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내부 아카데미에서 각 분야의 선배 변호사들이 실무 교육을 제공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법인 세종 외부 전경

Q. 세종의 수평적 조직 문화는 지원자들이 주목하는 특징 중 하나다. 수평적 조직 문화가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박준현 변호사: 내가 생각하는 수평적 문화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다. 예를 들어, 정지웅 변호사와 업무에 대해 논의할 때도 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한다. 실제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쑤 변호사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파트너 변호사들은 이를 경청하고 반영한다.

어쑤 변호사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세종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신입 변호사들의 처우나 복지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박준현 변호사: 컨펌 후, 신입 변호사들에게는 연구비와 모임비가 지원된다. 따라서 컨펌된 변호사들끼리 모여 식사를 할 경

우, 일정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이를 지원한다. 또한, 세종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2월에는 스키 트립이 진행되며, 사이판 해외 워크숍을 비롯한 다양한 모임과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입사 후에는 실질적인 생활 지원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저녁 식대가 2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객과의 미팅이 없는 날에는 큰 비용을 지출할 일이 많지 않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 식대를 회사에서 지원받으면 식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복지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요금 지원, 택시비 지원, 체력 단련비, 어학 교육비, 건강 검진비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사내 안마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어, 근무 중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심리 상담 서비스, 사내 카페 운영, 법인 콘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Q. 세종의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 중에서, 변호사님의 커리어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정지웅 변호사: 로펌에서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 중 하나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업무는 팀 단위로 진행되며, 신입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바로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고, 시니어 어쑤 변호

사와 파트너 변호사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

과거에는 종이 문서에 붉은 펜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했지만, 현재는 워드 프로그램의 마크업 기능을 활용하여 어떤 부분이 수정·추가·삭제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업무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체득하는 경험이므로 변호사로서의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선배 변호사들이 피드백을 제공할 때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때문에 배움의 효과가 더욱 크다.

Q. 마지막으로, 세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준현 변호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좋은 인재를 함께할 동료로 모시고 싶다. 단순히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회사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배를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리크루팅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는 매우 좁은 세계다. 한 다리만 건너면 대부분 서로 아는 사람일 정도로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법무법인(유) 세종 정지웅 변호사

하다.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게 된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웃음) 이타적인 태도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본인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점이 리크루팅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정지웅 변호사: 나 역시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로스쿨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환경이다. 학부 시절 높은 학점을 받고, 리트(LEET) 시험을 통과하여 어렵게 입학했지만,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도 다시 강도 높은 경쟁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제로 일하게 되면, 로스쿨 동기들이나 다른 학교 출신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진다. 변호사 업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경험이 부족할 경우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송무팀에 있는 친구에게 사건 진행과 관련된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자문을 받을 일이 많아진다.

결국, 인간관계는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법률적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변호사로서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 김준혁 의원, 박균택 의원이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전문화 과목 P/F제 해야… 변호사시험법 개정 필요성 한목소리”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사진=로스쿨타임즈 제공)



(왼쪽부터) 환영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박균택 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

[발제]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전문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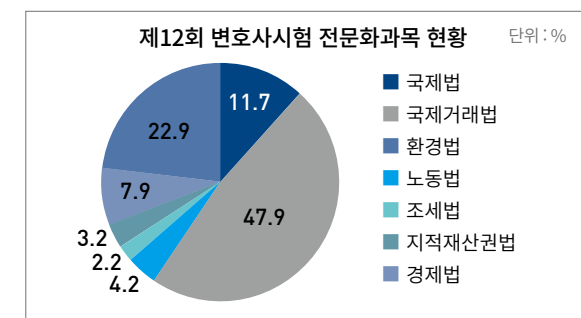


변호사시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전문화과목’)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로스쿨의 출범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채로 점점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문화과목을 통한 법학교육의 전문화(특성화)라는 의미는 사라진 채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에의 유불리가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점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1) 전문화과목의 운용 현황

1. 전문화과목 응시자 현황과 빅3 쏠림 현상

국제법(11.7%), 국제거래법(47.9%), 환경법(22.9%) 과목에 82%의 응시자가 몰리고 있다. 응시생들의 선택 기준은 수험부담이 낮고 표준점수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전문화과목 전임교수의 현황과 감소 추세

전문화과목 7개를 담당하는 전임교수의 총원은 2012년에는 233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13명으로 2012년 대비 9%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191명으로 2012년 대비 19% 감소됐다.

연도(총원)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2012(233)	50	25	33	31	39	28	27
2019(213)	39	27	30	26	38	26	27
2024(191)	36	22	26	24	35	24	24

3. 전문화과목 수강생 감소와 폐강

몇 개의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전문화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이나 수강생들의 참여가 개원 초기에 비해서 절반 이하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문화과목 전임교수가 퇴임하는 경우에 그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필수과목 전임교수에게 전문화과목의 강의를 보조적으로 맡기고 있다.

[2] 전문화과목 부실화에 대한 개선방안 - 전문화과목 시험 P/F 도입



현행법	개정법(안)
제9조(시험과목)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9조(시험과목)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③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 산출 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으로 변경된다면 전문화과목 160점은 총점에 합산되지 않고 변경된 총점은 기존 1,660점에서 1,500점으로 바뀌게 된다. 전문화과목의 합격기준은 법조윤리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과락기준으로 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토론 ① 이상훈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

전문화과목의 개선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와 ‘취업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최상위권 로스쿨에 가야 좋은 로펌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은 좋은 취업자리를 얻기 위해 고득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직접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어 문제의 원인을 검증해 보면 좋겠다.



토론 ② 구본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제시된 문제에 공감하고 대안 또한 상당히 타당성 있다. 다만, 수능 개편을 할 때 흔히 학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하는데 이번 발제문의 내용에서 법학 교육 정상화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 P/F로 간다, 절대평가로 간다는 것은 시험에서 그 과목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화 과목 교수님들이 반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해 보인다.



토론 ③ 김정규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현행 시험 체제 하에서 점수제가 아니라 합격, 불합격 제도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현행 시험 형태인 사례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다. 사례형이 아니라 선택형 즉 객관식 형태로 출제하는 것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법조문을 해석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자질이므로, 선택형보다는 사례형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토론 ④ 문무기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가 제시한 전문화과목 개선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전문화과목 P/F 제도 도입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합격 기준의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너무 낮은 기준은 선택과목 학습의 부실화를, 너무 높은 기준은 또 다른 부담으로 기능하여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택과목 학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졸업요건에 선택과목 이수학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어느 개업변호사의 이야기



정성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담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법률사무소 호담이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6년 차 변호사이자 5년 차 개업변호사인 정성용 변호사라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 몇 차례 사법시험에 도전하였다가 합격하지 못하였는데, 더 이상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시험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로 전환하여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나름 재미가 있었고 적응도 잘하여 잘 지냈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법조인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어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2016년 초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였고, 그해 다행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그동안 꿈꾸어왔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 로스쿨 생활의 어려운 점

제가 로스쿨에 입학하였을 때는 35살의 나이였는데, 나이도 조금 있었고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수년 동안 책을 손에서 놓고 있었다 보니, 대학생 때보다는 공부하기 위

한 두뇌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때는 교과서 시험 범위를 5회독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암기를 거의 완벽하여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을 시킬 수 있었는데, 로스쿨 때는 비슷한 노력을 기울여도 암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수업에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변호사시험을 위하여 공부해야 할 분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항상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했으며,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행히도 좋은 동기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였습니

3. 개업을 하게 된 경위

저는 변호사가 된 후 ‘언젠가 개업을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0대 후반의 나이에 변호사가 된 점,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동안 로펌 변호사들과 협업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모습을 봐 왔던 점, 변호사가 되기 전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던 점, 개업을 하기 전 변호사 1년 차 때부터 몇몇 주변 지인들이 사건을 의뢰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유들이 쌓이면서 변호사가 된 지 1년 만에 빠르게 개업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개업변호사의 장점

개업변호사의 최대 장점은 시간을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저는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외 다른 법원에

서 재판이 있을 때, 재판 시간과 그 전후 다른 일정 및 동선을 고려해 법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중간에 빈 시간이 있을 때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는 재미를 얻다 보니 한 장소에서만 일할 때 올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적인 일과 시간에 업무 외적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 밖의 시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점심 식사 시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적이든 업무 외적이든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점심에 을지로에 있는 지인과 식사를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좋아하는 영화가 상영을 하면 일과 중 일정이 없는 빈 시간에 잠시 관람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진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 탄력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업변호사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또한 시간을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점인데, 예를 들어 저는 현재 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 위원으로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에도 참여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서 서울 ○○구에 소재한 ○○동 마을변호사로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 ○○경찰서에서도 법률상담 변호사로 참여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 가지 사건만 경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주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개업변호사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개업변호사로서의 애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걱정은 항상 따라다니고, 사건을 대하는 부담감에 대한 무게 또한 고용된 변호사로서 있을 때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지며, 그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휴식을 취할 때 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은 오히려 일에 대한 애정을 쏟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싫지만은 않은 마법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마음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변호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결과를 떠나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 또한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로스쿨 재학 중인 후배님들의 로스쿨 생활이 현재는 매우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오면 가족이든 지인이든 나 자신이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개업변호사의 길도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	공	지	능	이		여	는		
새	로	운		지	평	,			
융	합	적		사	고		능	력	
갖	춘		법	률	가	의		시	대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팀장
부연구위원 / 법학박사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일상이 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와 미래 전망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지만, 이제는 누구도 인공지능이 열어갈 새로운 변화를 의심하지 않는다. “AI for All”이라는 표어가 널리 쓰이는 것도 우리 삶에서 인공지능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법조계를 이끌어갈 예비 법조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과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제기되는 법률 쟁점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현재 법조인 양성 과정의 주요 전공과목과 로스쿨 교육과정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과정은 기본법과 절차법의 수학에 치중되어 있어, 현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개별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또 판례를 암기하고 이해하는 공부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이는 법률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과정이지만, 현 시점에서 법학 분야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 법학 교육은 왜 새로운 혁신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법률 문제는 법학적 사고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이론(Rechtstheorie)과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를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적 현상의 맥락에서 재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의 교조적 원칙과 이론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에 대한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다학제적 시각이 요구되므로, 학제 간 융합과 폭

넓은 지식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나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장 분석과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시장 환경의 관점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현 시점에서 기존 시장에서의 가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의 잠재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며, 기술적 특성의 관점에서는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오버피팅(Over-Fitting)을 유도하는 행위나, 딥러닝 모델의 특성상 발현되는 기술적 오류에 가까운 암기나 역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같은 현상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법학자에게 융합적 사고와 유연한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

학부에서부터 박사학위까지 법학을 전공한 필자는 경제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연구 경력을 시작했다. 2013년 입사 당시만 해도 이 연구소는 경제학자 중심의 단일 전공 연구소였다. 그러나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ICT가 일상화되자,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 수요가 급증했고, 현재는 법학, 공학, 기술경영학, 미디어학, 통계학, 국제개발학 등 여러 전공의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종합연구소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법학 전공자로만 구성된 현 직장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다른 양상으로 감지된다. 디지털 시대의 이슈를 다루지 않는 법제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법제의 연혁과 과거사를 분석하는 역사적 연구조차 현재의 이슈에 참고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이론과 체계를 연구하는 기초연구에서도, 연구의 목표는 전통적인 법이론을 어떻게, 왜 수정해야 하는가가 주된 관심사가 된지 오래이다.

법조계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증거수집과 입증은 쉬워졌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막론하고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 인공지능 산출물의 권리 침해 판단과 이익 분배 등에 관한 사법적 쟁점은 앞으로 재판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을 쏟아낼 것이다.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한 책임 문제에서 기관, 제조업자, 설계자, 보험사 각각의 책임 범위와 공동책임 부여를 위한 법리 구성 등 현 시점에서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쟁점들도, 근 시일 내에는 현실에서의 문제를 수렴하기 위해 입법의 방향과 법이론을 완성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의 법조인들은 단순히 법전의 규정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고, 이미 나타난 분쟁에 기초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학습이 필수적이며, 융합적 사고를 가진 법률가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단순한 법조인이 아닌, 융합적 사고를 갖춘 뛰어난 법률가를 목표로 하기를 바란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낳는 대표적인 병폐로 언급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나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은 비단 기계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자정적 노력이 필히 요구된다. 우리 법조 교육의 현실과 법조인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적 편향이 내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계도 유튜브 전성시대

최근 한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에 꼽힌 직업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퇴사할게’와
‘유튜브 할게’가 2대 허언으로
꼽힐 만큼, ‘유튜버’는
그야말로 핫한 직업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법학과와 법조계에도
유튜브 바람이 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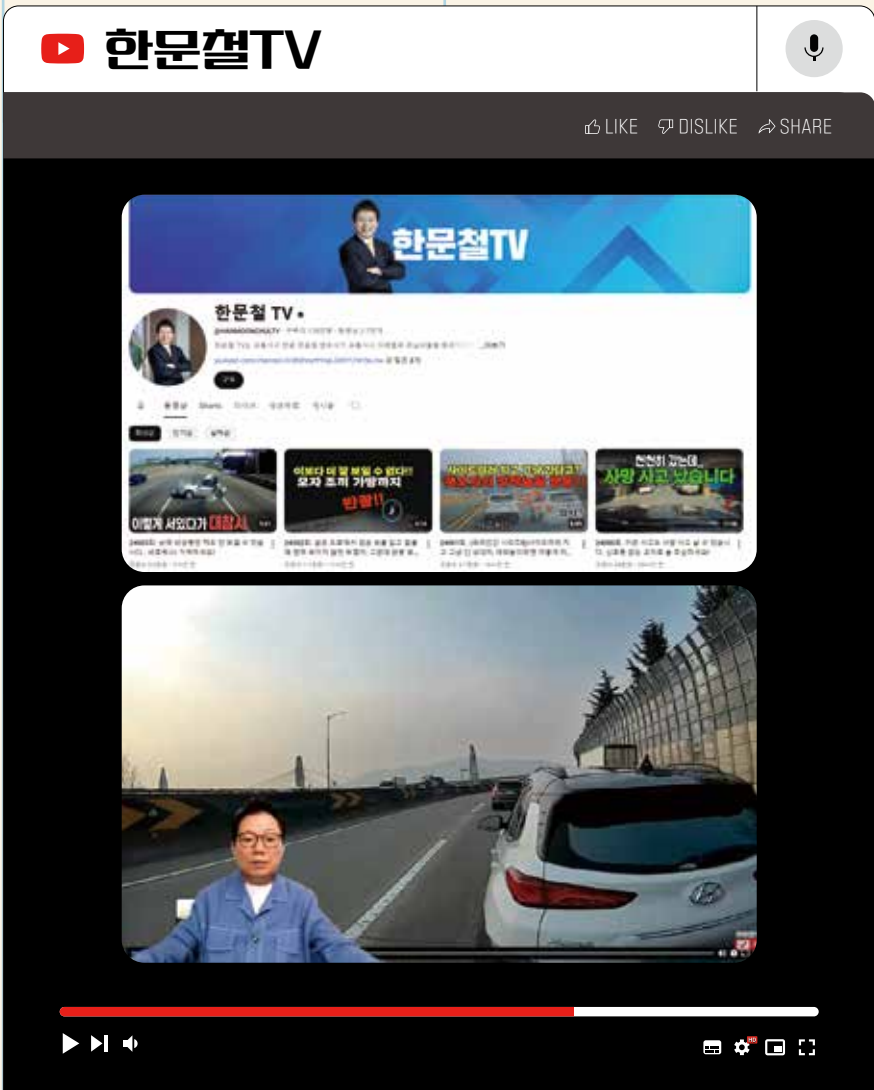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한민국에 한문철 변호사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 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주는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17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구독자들이 PD들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하루 10개 이상의 영상이 꾸준히 업로드 되는 채널이기도 하다.

📌 채널포인트

교통사고계의 BTS로 불리는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라면 안전 운전,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들



이해성·임동규·오수비·최지양 변호사(법무법인 도아)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채널.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상간소송, 이것 없으면 무조건 집니다.’, ‘하루 100만 원, 고수익 꿀알바의 진실’ 등 일상 속 궁금한 법 지식을 영상에 담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 채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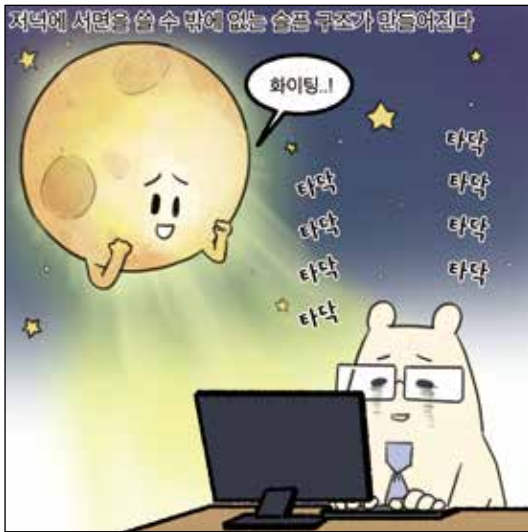
다양한 형태의 자막 때문에 예능프로그램 보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유튜브만 틀어놔를 뿐인데 시간 순삭!

<굿피플>, <피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변호사의 채널인 만큼, 얼굴만 봐도 솟아오르는 내적 친밀감.

여러분은 지금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사람
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 로스쿨 생활, 진로에 대해 댓글 남기면 운영자가 직접 댓글까지 달아주는 착하고 유익한 채널.



조만호 변호사는 다소니 작가와
협업하여 인스타그램에 '피고미'
인스타 톤을 운영 중이다.
@urmasterpieceofgod



피할 수 없는 황사, 예방법은?



최혜옥 변호사

법률사무소 은송
2005. 2. 우석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5. 3. ~ 2010. 2. 약국,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
2010. 3.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2013. 4.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9. ~ 2021. 3. 변호사 최혜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1. 4. ~ 현재 법률사무소 은송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전주에서 ‘법률사무소 은송’을 운영하고 있는 최혜옥 변호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네요. 한겨울에 비해 기온도 제법 올라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법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봄의 따뜻함은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현상은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등 중국

과 몽골의 사막지대와 황하 상류지대가 봄철에 건조해지면서 흙먼지가 상층기류를 타고 3,000~5,000m 상공으로 올라가 편서풍에 실려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사는 직경 0.2~20μm의 먼지로 석영, 장석, 운모, 고령토 등 광물 집합체인데 화학적으로는 토양성분인 철,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주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산업화와 동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등 중금속과 다이옥신 같은 다양한 오염물질까지 실려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진 대기 중의 부유 물질로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생겨납니다.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지름이 2.5μm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성분 등은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의 깊숙한 곳까지 도달 가능하며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순환하면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코나 기관지의 점막과 눈의 각막이나 결막은 보호막이 없이 바로 먼지와 접촉되고 자극될 수 있어서 알레르기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이 쉽게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은 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 중 먼지의 농도가 증가하면 천식을 비롯한 만성폐색성폐질환자의 폐기능 감소와 호흡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역학적인 조사에서도 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과 하기도 질환 같은 호흡기질환자가 증가하고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률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질환과 관련해서도 황사의 노출이 접촉성 피부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사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사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F80 이상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

인,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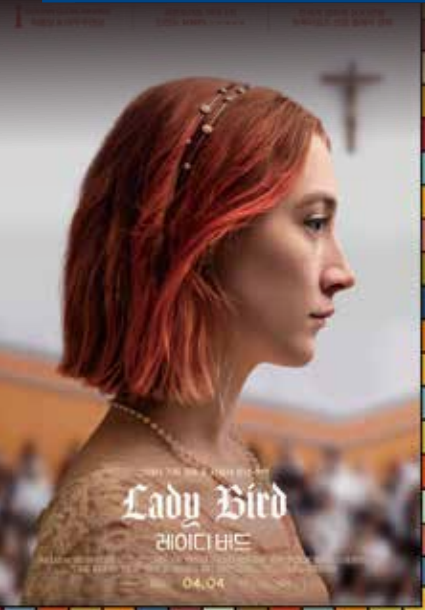
두 번째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피부와 호흡기에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주 씻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충분한 수분의 섭취는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봄철 황사현상과 이에 대한 예방책을 알아보았는데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힘든 수험생활 잘 이겨내시고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원더>, <레이디버드>를 통해 보는 ‘시작’의 의미



한 해는 1월에 시작되지만, 학기는 3월에 시작한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1월보다는 캠퍼스에 푸르름이 깃드는 3월 이야말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는 때다. 코끝에 남은 겨울을 떨쳐 내고 각자 출발선에 선 지금, ‘시작’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작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설레는 말은 드물다. 여기에는 첫걸음을 떼는 자의 흥분과 기대감, 무엇보다 즐거움이 흠뻑 묻어있다. 그래서일까? 시작의 이면에는 언제나 불안과 초조, 약간의 두려움마저 베어 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되고는 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은 매우 복합적인 감정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생의 관문을 지나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하다. 여기에 시작의 복잡미묘함을 응시하는 두 편의 영화가 있다. 아래부터 영화 <원더>(2017)와 <레이디 버드>(2018)에 관해 (결말을 포함하지 않은) 약한 스포일러가 나오니 유의해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원더>의 주인공 어기(제이콥 트렘블레이)는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지녔다. 안면기형 장애로 27번의 성형 수술을 마친 이 아이는 그동안 홈스쿨링을 받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이사벨(줄리아 로버츠)은 선언한다. 더 이상 집에서만 지낼 수는 없어. 궁금한 동시에 두려운 그것, 여태 뒤로 미뤄두었던 때는 기어이 오고야 말았다. 어기는 등교를 결심하며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떤다.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 어기의 얼굴을 두고 나쁜 말을 내뱉는 또래가 나온다. 헬멧을 쓰고 스스로를 감추는 어기를 보며, 이사벨의 마음은 무너진다.

하지만 어기는 자기 힘으로 아픈 시간을 조금씩 극복한다. 이 영화가 웰메이드 작품인 이유는 여기서 드러난다. 어기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데, 여기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 그저 보통의 아이들이 그러듯이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고, 거기에 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다가올 따름이다. 영화는 장애를 가진 어기가 친구를 얻는 과정을 특별한 경험으로 끌어올리며 아무나 이루기 힘든 소원을 이룬 것처럼 부풀리지 않는다. 대신 인간이 인간에게 끌리는, 그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관계의 진리를 펼쳐 보인다. 언제까지나 서고 싶지 않았던 길, 상찬과 상처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곳. 다사다난한 자기만의 ‘인생길’에 오른 어기는 그렇게 내일을 향한 작은 한 발 짝을 내딛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어기만의 이야기일까? 장애에 관한 설정은 이 아이를 타자화하게 만들지만, 실은 <원더>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새로운 곳을 향할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렵다. 두려움의 크기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집단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친근하면서도 만만치 않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의 가슴을 묵직하게 누른다. 어기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인간관계는 가끔 벅겁다. 나는 이곳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내 안의 유별난 점이 불쑥 튀어나와 ‘괴물’이라는 꼬리표가 붙지는 않을까. 시작은 싱그러운 불안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불쑥 생겨날 때 어기를 생각해도 좋겠다. 이 아이는 때로 헬멧 뒤에 숨고, 혼자만의 상상(우주인이 되어 모두에게 환영받는 상상)으로 힘든 시간을 버틴다. 이런 노력은 귀여우면서도 안쓰럽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그의 일상을 붙들고, 마침내 마음 통하는 이들을 어기의 삶 안으로 초대한다. 걱정뿐인 엄마와 친진한 아빠로 보이지만 실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소외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를 아끼는 누나, 어기의 내면의 따듯함과 총명함을 알아보는 친구들, 시답잖은 농담에도 친절하게 반응하는 누나의 남자 친구까지. 실은 어기는 일상 가득히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이토록 투명한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와도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괜찮을 것이다. 떨리고 불안해도. 드디어 막을 올린 치열한 레이스의 한편에는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 또 다른 시작을 앞둔 소녀가 있다. <레이디 버드>의 크리스틴(시얼샤 로넌).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조그마한 동네 새크라멘토(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함)를 떠나 도시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싶어 한다. 그녀에게 새크라멘토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여전히 갑갑한 공간이다. 그리고 크리스틴에게 엄마 메리언(로리 맷캠프)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늘 엄마에게 멋진 딸로서 인정받고 싶은 동시에, 하루 빨리 독립하여 성인의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 훌륭한 영화는 ‘시작’의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속삭인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무언가와와의 이별을 전제한다는 점 말이다. 어른으로서 빛나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고 유치해서 떠나고 싶다 소리쳤던, 그러나 실은 언제까지고 머물고 싶었던 아늑하고 따듯한 유년기와 작별해야 한다. 마치 어기가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며 엄마의 포근한 손을 처음으로 놓은 것처럼.

재밌는 것은 크리스틴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들어간 이후다. 이 시기는 영화에서 짧게 등장한다. 크리스틴이 염원하던 그곳은 상상했던 것만큼 환상적이지는 않다. 다만 조금 낯설어서, 새크라멘토와 다른 공간이라는 점만은 확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이곳에서 고향을 닮은 것들을 발견한다.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간호사. 오빠를 닮은 어린 소년. 첫사랑을 상기시키는 밤하늘의 별. 떠난 곳은 기억 안에 새겨진 채로, 새로운 세계 위에 부드럽게 포개진다.

<레이디 버드>와 <원더>는 모두 인생의 새 챕터를 여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크리스틴과 어기는 일생일대의 관문 앞에 섰다. 이 순간을 지독하게 염원했다는 점에서, 크리스틴은 어기와 정반대의 경우처럼 보인다. 그러나 둘은 소중한 것들을 꼭 끌어안고 새 발걸음을 디딘다는 점에서 닮았다. 어기가 친구의 손을 잡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크리스틴은 자기 안에 새겨진 추억의 힘으로 작별의 순간을 넘어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과정을 성숙이라 불려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출발선 앞에 선다. 쏟아지는 응원. 꼭 쥔 주먹. 긴장된 얼굴. 입술이 마른다. 목이 탄다. 이제 힘껏 달리지만 하면 된다고, 세상은 그리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달음박질이 흥분되는 동시에 가끔 힘겨울 수 있다는 점,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은 자주 생각된다. 이 모든 순간을 감당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그러나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실은 이 한마디에 닿기 위해 긴 글을 거쳐 왔다. 옆에는 친구가 함께 뛰고 있고 멀리서는 어른들이 목청 높여 응원하던, 숨이 가쁜 것인지 벽차오르는 것인지 모른 채로 그저 힘껏 앞으로 달려가던, 학창 시절의 그 달리기가 실은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홍수정 영화평론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6년 영화전문지를
통해 등단
-영화평론가로 활동 중

2025년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숙 출제



2월 17일(월)부터 2월 21일(금)까지 2025년도 제1차,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숙 출제가 진행됐다. 이번 합숙은 올해 6월과 8월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홍대식 총괄위원장(법전문협의회 이사장) 외 85인의 출제진이 참여했다. 2025년도 제1차 시험은 6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제2차 시험은 8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제3차 시험은 10월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진행된다.

2월 17일(월)부터 2월 21일(금)까지 2025년도 제1차,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숙 출제가 진행됐다. 이번 합숙은 올해 6월과 8월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홍대식 총괄위원장(법전문협의회 이사장) 외 85인의 출제진이 참여했다. 2025년도 제1차 시험은 6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제2차 시험은 8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제3차 시험은 10월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진행된다.

법전문협의회 제69차 이사회 및 제76차 총회 개최



3월 7일(금) 제주도에서 제69차 이사회 및 제76차 총회가 열렸다.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026학년도 법전문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앞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법전문협의회 신임 임원 선임, 법전문협의회 정관 개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2025.1~3월 취임, 학교 가나다순)



김희균 원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표명환 원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관기 원장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전문협의회·주식회사 로앤컴퍼니 업무협약(MOU) 체결



1월 24일(금) 법전문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전문협의회와 주식회사 로앤컴퍼니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업무협약식에는 홍대식 법전문협의회 이사장, 김보환 로앤컴퍼니 대표,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률 콘텐츠 활용 관련 신규 사업 공동 기획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 대상 법률 AI 접근성 강화 △빅케이스 및 슈퍼로이어 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리걸테크 및 법률 AI 경진대회와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1월 24일(금) 법전문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전문협의회와 주식회사 로앤컴퍼니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업무협약식에는 홍대식 법전문협의회 이사장, 김보환 로앤컴퍼니 대표,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률 콘텐츠 활용 관련 신규 사업 공동 기획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 대상 법률 AI 접근성 강화 △빅케이스 및 슈퍼로이어 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리걸테크 및 법률 AI 경진대회와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전문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 강화 논의



홍대식 법전문협의회 이사장이 2월 25일(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을 예방했다. 예방에는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동행한 가운데 서울변회 김기원 수석부회장, 양윤섭 사무부총장이 배석했다. 홍대식 이사장은 “조순열 협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법학계와 법조계에 산

홍대식 법전문협의회 이사장이 2월 25일(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을 예방했다. 예방에는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동행한 가운데 서울변회 김기원 수석부회장, 양윤섭 사무부총장이 배석했다. 홍대식 이사장은 “조순열 협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법학계와 법조계에 산

법전문협의회, 법원행정처와 실무교류협력 논의



에게 다양한 수습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

3월 4일(화) 홍대식 법전문협의회 이사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교류협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정훈 경희대학교 로스쿨 원장, 서보국 충남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이형근 기획조정실장, 이종기 인사총괄심의관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로스쿨 학생들

법무법인(유) 율촌, 2025년 하계 자유인턴제 실시

- ✓ **모집대상** : 로스쿨 2학년 재학생
- ✓ **모집인원** : 0명
- ✓ **전형방법** : 서류심사
-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필수, 자유양식), 로스쿨 전 학년 성적증명서(필수),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필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선택)
- ✓ **접수기간** : 3월 20일(목) 09:00 ~ 5월 7일(수) 18:00



※ 하계 자유인턴제는 법무법인(유) 율촌이 방학기간 중 실시하는 정규 실무수습 프로그램과 별개로,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로스쿨생들을 선발해 이를 토대로 신입 변호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유) 지평, 2025년 로스쿨 하계 인턴 선발

- ✓ **모집대상** : 로스쿨 2학년 재학생
- ✓ **모집인원** : 00명 내외
- ✓ **인턴내용** :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과제, 변호사 강의 및 간담회
- ✓ **전형방법** : 서류심사
-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필수, 지정양식), 로스쿨 전 학년 성적증명서(필수),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필수), 기타 서류(자율)
- ✓ **접수기간** : 2월 24일(월) ~ 5월 8일(목) 자정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로스쿨 2학년 하계 인턴 선발

- ✓ **모집대상** : 로스쿨 2학년 재학생
- ✓ **모집인원** : 00명 내외
- ✓ **전형방법** : 서류심사
- ✓ **제출서류** : 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누적 성적증명서 외 기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접수기간** : 2월 17일(월) ~ 5월 7일(수) 14:00



<http://www.lawschooltimes.com/>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s://www.yu.ac.kr/lawschool>



원광대학교
<https://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